

주부신행담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

너 무도 다급한 마음에 처음 보는 스님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우리 소회 살려달라고 스님의 기도로 살려만주면 열심히 절에도 다니겠다고 말하며 매달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때를 썼던 것이다. 생전 처음으로 스님이라는 분을 가까이에서 뵈게 되었던 나는 물론 기쁠 것이 없었다. 말만 하면 그 스님이 우리 소회를 살려 줄 것만 같았다. 그 스님이 굉장히 위대하고 마치 큰 바위에 새겨진 미륵부처님 같이 보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매달린 나에게 스님은 엉뚱하게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보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아이 살려 달라니가 왜 보살심, 부처님 정법은 또 뭐야' 하는 생각만이 들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정법인지, 도무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난 열심히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했다. 스님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다. 오시면 우리 소회를 꼭 들려다보고 가셨는데, 내 마음에 큰 위트가 되었다. 스님이 들려다본 만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노력도 무시한 채 소회는 짧은 삶을 마감하고 나의 결을 떠났다. 채 두달도 안되는 52일간의 투병생활 끝에 한마리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림·문병성

짧은 삶 마감한 딸 가슴에 묻고...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소회와 나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았다. 어느날인가 몹시 아파하면서 '엄마 나 죽을 것만 같아' 하는 소리에 목이 메인 내가 겨우 한다는 말이 '소회 너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사'였다. 그런 엄마를 소회는 아픈 와중에도 언니와 동생이 있다며 위로해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에서는 무엇인지 줄줄 흘러내리는 느낌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회를 떠나 보낸 내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난 늘 술을 마셨다. 남은 두 아이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난 소회를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만났던 스님이 계산 사찰로 마음 속에 묻고 소회와 함께 갔다. 그리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하면서 기도를 했다. 기도하면서 법당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스님에게 여지 소리도 참 많이 했다. 새벽 2시에도 잠을 못 자고 산 속에 있는 절을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 무서움도 두려움도 내겐 없었다. 난 정말 나쁜 짓 안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했다. 스님 말씀대로 전생에 어떤 악연을 지었는지, 무슨 죄업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고 묻고 또 물었다. 이것이 내 업이라고 스스로 위로도 해 보았다.

그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지장보살님께도 매일 기도를 했다. 나 죽으면 소회랑 꼭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 속의 독소는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이은희(경기도 의정부시 후원동)

따벌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청소년 맑고 푸르게 키우자”

파라미타 유해환경감시단 발족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조계사 주지)는 20일 포교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발족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현근 1명, 대전 1명, 부산 5명, 대구 2명, 광주 1명, 경기 14명, 경남·북 10명, 충남·북 7명, 전남·북 2명 등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영상·인쇄·PC통신 등 모니터 △시설 감시단 운영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장구 개성 △유해환경 없는 시범마을 조성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스님·재가불자등 97명 전국서 활동 성적 유혹·폭력등 사회악 감시지도

스님(수효사 주지) 등 스님과 고우리(동대부중)·권진영법사(동대부고) 등 재가자 97명이 각각 감시단원으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2천여만원의 투입, 감시단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라미타는 감시단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중앙 사무국에 고발장구 창구도 상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비의진화와 연계해 상담활동을 전개하며 오는 연말에 연중활동 백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는 20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켰다.

남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역군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집근처에 유해환경이 갈수록 늘어나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며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도 불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불자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정부가 서울시와 5개 광역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는 각 종교·사회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유해환경감시단은 총 30여개, 이중 불교계에서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등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5C 고구려 동명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찰로 폐허가 됐다가 최근 복원된 평양 정릉사.

한가위에 보는 북한 불교유적

불교TV 6월 '그리운 산하...' 방영

금강산·묘향산 사찰·평양 정릉사등 소개

정부의 금강산 관광 허용으로 어느 때보다도 북녘 산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북한의 불교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북한의 불교문화 유산들을 조명 한 '그리운 산하, 북한불교 유적'을 찾아서 (담당PD 김충현)를 10월6일 오전 10시15분부터 50분간 방영한다.

'남마다 좋은 날' 추석특집으로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평양시에 있는 흥흥사 당간지주와 대동문의 '평양종', 고구려 동명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로 최근에 복원된 평양 근교의 정릉사 등이 소개된다. 특히 정릉사의 불사현장을 통해 북한 문화의 향기 등이 실려있다. (jikim@buddhapia.com)

청소년 포교지 '좋은친구' 창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포교지 <좋은친구>가 19일 창간됐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에서 펴낸 <좋은친구>는 초·중·고교생에게 무료 배포됐다. 창간호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바르고 지혜롭게, 삼화가 실려있는 △생각이 있는 작은 글, 한국 민족미술연구소 최안수 연구실장이 연재를 맡은 △우리 문화의 향기 등이 실려있다.

건강 365일 <34> 치자

가정 주부들에게 치자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이는 식용작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대떡을 만들 때 치자를 넣는 것이다. 그러면 옛부터 술안주로 애용하고 있는 빈대떡에 왜 치자를 넣었을까?

우선 녹두 자체를 보면 독을 없애주는 해독작용이 강하다. 거기에다 술의 알독을 없애주는 치자를 곁들인다. 단순한 음식 하나에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술을 오랫동안 과음하다 보면 말년에 가서는 중풍이 온다. 알콜이 몸안에 시간을 두고 쌓이면 몸안의 진액, 다시 말하면 피나 호르몬 등이 술의 알독으로 인해 말라 버린다. 그 후유증으로 중풍이 오는 것이다. 진액을 말리는 술의 알독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빈대떡이다. 그래서 술상에는 빈대떡이 자주 오른다.

그러면 치자는 어떤 병에 좋은 효과가 있을까?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끼면 몸속에서는 그 열로 인해 피가 마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이 열을 잘 받는 체질이 있다. 급



<영재한의원 원장>

소장·심장의 열 다스리는데 특효

위염·만성소화불량·당뇨병 치료

한 성격이거나 욕심이 많은 소양인 체질이 바로 그렇다. 소양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열을 받으면 그 화기가 체장으로 들어가 몸이 뜨거워지고 손발이 저리며 얼굴이 붉는다. 먹는 것이 없어도 살이 찌며 눈에 피로가

문화제 사생대회 불국사 10월 18일

불국사(주지 성타스님)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10월 18일 경주에서 문화제에호환동 및 '문화제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경남·북, 부산지역 파라미타회원 4백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경주 엑스포 행사장을 다니며 관광객들에게 불국사, 석굴암 등 불교문화재를 홍보하고 성보에 대한 친근성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 불국사에서는 문화제 정화 및 사생대회가 개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문화제 에코활동 4시간 봉사증'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10월 12일 까지. (02)723-6165

불/자/정/보(사찰)

사찰 안내

-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대로변 산림)
 - ◆ 평수 : 대지 204평, 사용평수 280평
 - ◆ 건물구조 : 연면적 160평, 지하1층, 지상 3층 (현대식 신축건물)
 - 3층-법당 40평, 2층-요사, 중무소 40평, 1층-전통찻집 40평, 지중-공양실 40평 (채광, 통풍양호)
 - ◆ 매매가액 : 6억 5천만원
 - ◆ 특징 :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포교 최적도량임
- 0331)263-0911/015)272-8895

창건주 보살님 모심

- ◆ 위치 : 강원도 홍천 ◆ 부지 : 垵, 田, 林 총 1.482평
 - ◆ 법당 : 13평(고전 한옥기와)
 - ◆ 요사 : 28평(고전 한옥기과)/시설:법도
 - ◆ 기타 : 수려한 산세의 기암괴석, 청정 자연계곡과 사계절 1급수 물이 흐르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도량입니다. 본 도량의 시세는 3억원선 이으나 단돈 7천만원 채무관계로 인하여 삼보개물이 사채이자 손으로 넘어가서 폐사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본 청정도량을 IMF기역인 2억 5천만원에 인수 하셔도 좋고 7천만원 정도만 도의 주시여 본 도량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은 평생 가족으로 모시고 창건주로서 예우하여 드리고 사후 부도비와 공덕비 및 49세 기일 일체를 책임지겠습니다.
- 스님 직접 : 0366)433-7650/433-2171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범사합장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사찰 안내

-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 부지 : 60평
 -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복욕탕
 - ◇ 가격 : 1억(절충가능)
- 02)936-4785

사찰 안내

- ◇ 위치 : 대구시
 - ◇ 규모 : 2층건물, 법당 28평
 - ◇ 삼존불·동불·후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법당시설 완비
 - ◇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중무소, 반지하 식당-13평
 - ◇ 매가 : 1억 3천
- 053)656-6609/011)790-7162

사찰 안내

- ◇ 위치 : 경북 경산(대구 인접)시 옥산동 소재
 - ◇ 대지 : 상가점 126평 (도로 인접, 철도 굴다리옆)
 - ◇ 법당 : 가건물 40평
 - ◇ 요사 : 25평 (※시설 완비)
 - ◇ 가격 : 1억 5천만원 (전세 4천만원, 월세가능)
 - ◆ 특징 : 대구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밀집지역으로 포교당으로 적합
 - ◆ 포교용으로 시설실비후 개인사장으로 금매함 (현 7천만원 동철 용자 포함)
- 011)308-4225/02)215-7978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 피부가 붉어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일이면 이기 속살만큼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미루저녁 인편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드립니다. ·

체·업·사·례

저는 4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신수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고, 진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잡티는 빽빽한 다듬어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바르니 코의 주어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11일째를 피부가 깨끗해졌을 정도로,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하얗고 있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없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호영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한국원동
☎. 3437-8282

불교인들의 만남, 불행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코스모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바람결 흔들리는 코스모스

고운자태 홀로 아픈 가슴 울고

소울한 바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으로 떠오르는 컹컹울 얼굴

빈 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원장 이영숙(본명)

대추, 초·재춘 신원 확실하고 직접 확실한 미혼남녀 현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성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